

# 광양시, 명품 교육 도시 육성 박차

### 유·초·중·고·특수학교 87곳 대상, 71억 지원 결정 공교육 활성화·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중점 주목

광양시가 명품 교육 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5일 “최근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열고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87개소의 2023년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인화 시장 주재로 이계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무경 전남도의원, 백성호·김보라 광양시의원을 비롯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받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학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내년 신규사업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했다. 시는 2023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사전에 고등학교 교무부장과 광양교육

지원청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를 반영했다.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력 향상, 창의 융합, 진로 진학, 인성 함양 등 12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억4천만원 증액한 71억원을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지원키로 의결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온라인 공동 학습 과정 운영, 진로 진학 상담 광양센터 운영 지원, 광양시 진로 진학 상담의 날 운영 사업을 반영해 자유 학기제와 고교 학점제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계획을 심의해 전년 대비 2억4천만원 증액한 71억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키로 의결했다. <광양시 제공>

또한 초·중·고 수혜학생으로 부족한 장애인 특수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심 상대적 소외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최무경 위원장은 “진로 진학 지원이 고등학교보다 이른 학교 등과 검토한 뒤 중단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2003년부터 매년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 급식과 학교체육 진흥 등 연간 150여억 원의 지원하며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육성 소관으로 실시하되 이 비용을 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향욱 위원은 “지금까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만족도 등의 조사를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교육 주제인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심층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인화 시장은 “모든 학생이 꿈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청·각급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지역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실현 가능성을 광양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등과 검토한 뒤 중단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2003년부터 매년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 급식과 학교체육 진흥 등 연간 150여억 원의 지원하며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보성, 道귀농어귀촌 평가 ‘우수상’  
전입 실적·유치 지원 집행 등 호평

보성군은 5일 “전남도 주관 ‘귀농어귀촌 평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귀농어귀촌 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귀농귀촌 사업 추진실적, 유치 실적 교육·홍보 실적 등 8개 항목 12개 평가지표를 평가한다. 보성군은 올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어촌 정책 실천에 창의성을 발휘했으며, 특히 농촌·전남에서 살아보기 전입 실적, 귀농귀촌 유치 지원 집행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군은 농촌·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맞춤형 종합 상담과 정보 제공, 정착 단계별 귀농인 농기주택 수리비, 정착 장려금, 청년 귀농인 농업 창업 지원 사업 등 귀농어귀촌인 지원사업·용자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 체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 문제에 대응해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만기자

# 담양군 봉산면, 인구 늘리기 총력

### ‘담양애 주소 갖기 캠페인’ 11월 한달간 전개

담양군 봉산면은 5일 “인구 회복을 위해 지난 11월 한달간 민·관 합동으로 담양애(愛) 주소 갖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산면 의용소방대는 최근 살기 좋은 봉산을 만들기 위해 봉산 농협 로컬푸드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홍보했다. 또한 봉산면 이장단은 주민 등록 사실조사 시 마을에 실거주 중이나 미전입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구 시책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며 전입을 독려했다.



담양군 봉산면은 최근 민·관 합동으로 담양애(愛)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해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섰다. <담양군 제공>

주민자치회에서도 지난달 25일 월례회의에서 정주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세대별 맞춤형 주민 프로그램 신설을 논의하는 등 매년 감소하는 마을 주민 수에 경각

심을 갖고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섰다. 면사무소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월 2회 운영하면서 관내 기숙사가 있는 제조업소와 사업체들을 직접 방문

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등록 인구 증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봉산은 인근인

광주와 맞닿아 있는 만큼 더욱 실속있는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해 봉산 생활권 자들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내년 벼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장성군,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장성군은 5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2023년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을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국립종자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 계획에 따라 새창무와 동진찰, 조명1호, 신동진, 백옥찰 등 5개 품종 96t 분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보급종은 종자검사 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 종자다.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만족스러운 품질의 쌀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보급종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 품종과 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종자 소요량은 1ha당 50kg이다. 단, 품종 선택 전 내년 군 공공비축 매입 품종이 새창무 단일 품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모든 품종이 소독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철저한 종자 소독이 필요하다. 종자 소독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벼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자료 또는 국립종자원 블로그 동영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정부보급종 가격과 수매가 차액이 1만원씩 보조하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도 추진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급종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문태기자



# 화순 솔매음 정원·효산리 정원, 道민간정원 등록

### 제19호·제20호...생활 속 정원 문화 활성화 기대

화순군 소재 ‘솔매음 정원’과 ‘효산리 정원’이 전남도 민간정원에 등록됐다. 화순군은 5일 “이양면 소재 솔매음 정원과 도곡면 소재 효산리 정원이 전남도 제19호·제20호 민간정원으로 각각 등록됐다”고 밝혔다. <사진> 솔매음 정원은 2만6천320㎡ 규모로 생대식물원, 자생화원, 목련원 등 시설

을 갖추고 있으며, 교목과 관목 1천여종과 초화류 400여종이 아름답게 배치된 정원으로 사시사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효산리 정원은 노부부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7천㎡ 규모의 풍경화식 정원이 다. 목수국 정원, 자작나무 숲 등을 주제로 정원이 구성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들 정원은 각각 2022년, 2020년 전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간정원 등록이 생태정원 도시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민간정원을 발굴, 등록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